

문예창작학과 교수 회의록

발신 : 문예창작학과

수신 : 대학원장

1. 교수회의

안건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작성 세부지침 수정(안)에 관한 사항

일시 : 2012년 9월 14일(금) 15시

장소 : 문예창작학과 세미나실(영암관 241-2호)

2. 회의 내용

위 안건과 관련하여 문예창작학과 교수 3인 회의를 갖고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의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내규 : 논문작성법, 양식 및 체계에 관한 내규와 관련, 문예창작학과의 학위논문 작성 세부지침은 변동이 없음.

* Turabian Style

2)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창작관련 졸업 내규 : 문예창작학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창작관련 졸업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함.

사유: 국내 대부분의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는 창작실기 교육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위논문 유형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학과에서도 관행적으로 작품 형태의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음. 이 시점에서 졸업의 요건으로 일반 형태의 논문으로만 요구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함.

붙임 : '문예창작학과 학위논문 유형 규정' 시안

2012년 9월 14일

문예창작학과 학과장 장옥관

부교수 손정수

조교수 박성원(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학위논문 유형 규정

제정 : 2012. 9. 14

1. 문예창작학과 학위논문 작성방법의 유형

문예창작학과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의 지도로 아래 두 유형의 논문 형태 중에서 한 유형을 선택해야 함.

1) 논문 형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과 논리성을 갖춘 학위논문으로 세부적인 작성 기준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논문작성 규정에 따름.

2) 작품 형태

자신의 창작품의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여 서론·본론·결론의 논문 형식으로 서술하되, 자신의 창작품을 사례와 근거로 제시함.

제출자격은 등단 문인(재학 중 등단 포함)에게만 부여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가) 석사과정 : 전국 규모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또는 권위 있는 문예지 신인상 당선자, 전국 규모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상위 입상자
- 나) 박사과정 : 전국 규모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 또는 권위 있는 문예지 신인상 당선 후 3권 이상의 작품집을 내거나 그에 준하는 문학적 업적이 우수한 사람
- 다) 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나 문단경력, 창작업적 등을 쌓아온 사람으로 학과 소속 전임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작품 형태 논문의 분량

- 1) 이론 부분 : 석사 100장, 박사 200장 이상(200자 원고지 기준)
- 2) 창작 부분 :

장르		편수		비고
		석사논문	박사논문	
시		50편 이상	70편 이상	
동시		60편 이상	100편 이상	
소설	단편	3편 이상	8편 이상	
	중편	1편 이상	3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1편 이상	
평론		3편 이상	8편 이상	
드라마	단편	3편 이상	8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1편 이상	
동화	단편	6편 이상	15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1편 이상	

- *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장르 구분, 작품당 원고량 등)은 문학계의 관례에 따름.
- * 박사논문의 경우 창작집 1권 분량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모든 작품은 본 대학원 재학 중에 창작된 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창작집에 수록되지 않아야 함.

2012. 9. 14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손정수 (인) 장옥환 (인) 박성원 (인)